

◆ 스포츠서울USA 가 만듭니다

코리아타운 데일리

Koreatown Daily

KoreaTownDaily를 시작페이지로

MEDIA KIT DOWNLOAD

WEBSITE MEDIA KIT DOWNLOAD

최신기사
NEWS

위클리스페셜
WEEKLY SPECIA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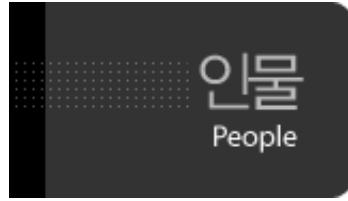
칼럼
COLUMNS

비즈니스탐방
THIS WEEK'S BUSINESS

신문PDF
PDF SERVICE

취재요청
EDITORIAL REQUEST

커뮤니티
COMMUNITY



인물검색 >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< SEARCH

[인터뷰] 화가 데이비드 장

Feb 20, 2009 03:13:22 PM

기사메일 보내기	기사 프린트	글자크기 확대	글자크기 축소
----------	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- 기사카테고리
- 최신기사 전체보기
 - 인물
 - 사회
 - 머니
 - 문화
 - 종교
 - 스포츠



데이비드 장씨와 그의 작품 '1Layout DotPattern'

그가 존경하는 인물은 비디오 아티스트 고(故) 백남준 선생님이다. 백 선생의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고 쉬워졌기 때문이다. 한인 1.5세 화가 데이비드 장씨(33)도 백남준 선생처럼 한인 2,3세대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돕는 것이 꿈이다.

19일부터 갤러리 웨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'국제교류전'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장씨는 대학생 때 미술을 시작한 늦깎이 화가다. 그는 "이번에 한 작품을 출품했는데 제 작품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도트(DOT) 문양을 살려 작업한 유화다. 가로 5피트, 세로 8피트로 작품이 좀 큰데 제 작품 중에서는 좀 작은 편"이라고 작품을 설명했다. 장씨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품의 크기가 모두 사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.

13세였던 1989년에 부모와 함께 미주리주로 이민 온 그는 영어가 너무 서툴러서 그나마 이해하기도 편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수학과 미술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그 영향으로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비주얼 아트를 전공한 뒤 2003년 LA로 옮겨와 패션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. 다음달 LAAA(Los Angeles Art Association)에서 발행하는 유망작가 카탈로그 'Who's Who'에도 그의 작품이 실리게 된다. 그는 오는 6월 다운타운에서 두번째 개인전도 열 계획이다.

<김정현 기자>

◀ 이전기사 갤러리 웨스턴, 28개국 참여한 국제 교류전 개최
다음기사 ▶ 다우지수 6년래 최저...7,500선 붕괴

나도한마디!

이 름